

# 다니엘서 - 제63번

밀러의 도표 너머: 이슬람, 조사심판, 그리고 최종 시험

Jeff Pippenger

2024-01-27

우리는 이렇게 전해 들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예언으로 이끄시고 요한계시록에 큰 빛을 주셨다." 그러나 밀러는 그가 등장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6장, 17장, 18장에 있는 "큰 빛"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 이는 그 장들이 그가 자신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언에 등장하는 왕국들의 활동을 밝혀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밀러에게 주어진 빛은 교회, 인, 그리고 나팔이었으며, '세 화'로 불리는 마지막 세 나팔이 하박국의 두 도표에 나타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밀러에게 주어진 그 '큰 빛'은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큰 빛'조차도 그의 역사적 배경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들의 시대부터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곱 가지 양태 속에서 겪는 모든 우여곡절과 변천, 모든 번영과 역경의 역사이다. 일곱 인은 교회를 둘러싼 땅의 권세들과 왕들의 행적,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역사의 기록이다. 일곱 나팔은 땅, 곧 로마 왕국에 내려진 일곱 가지 특별하고 엄중한 심판의 역사이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교황 로마에 내려진 마지막 일곱 재앙이다. 이들과 함께 지류들이 합류하듯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 섞여 한데 엮이며, 예언이라는 거대한 강을 가득 채워, 마침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의 바다로 이끈다.

"이것이 내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의 예언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예언에서 사용된 상징과 은유들은 이 책 안에서 모두 설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찾아야 하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연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음이 분명하다." 윌리엄 밀러, 『밀러의 강연』, 제2권, 제12강, 178.

밀러가 일곱 마지막 재앙을 교황 로마에 대한 일곱 심판으로 이해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는 교황 로마가 치유될 치명적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일곱 나팔을 '땅, 곧 로마 제국에 내려진 일곱 가지 특별하고 혹독한 심판의 역사'로 인정했지만,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체제를 구별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첫 네 나팔과 마지막 세 나팔 사이의 구별을 보는 그의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밀러는 로마에 가해진 심판이 일요일 준수 강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밀러주의자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밀러는 나팔들이 로마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은 옳았지만, 그 심판이 임한 구체적 이유와 첫 네 나팔과 마지막 세 나팔 사이의 구분은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제한된 관점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세 화라는 "보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된 도표들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으며,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깨우친 분별력은 예언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거룩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일도 주관하셨음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개의 신성한 도표를 제작하는 데에도 동일한 종류의 신적 감동을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밀러의 '보석'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슬람)은 최후의 '자정 외침'의 주제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자정 외침'의 주제는 예언 기간이 마감되는 날짜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의 '자정 외침' 기별(셋째 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로 예표되어 왔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 날짜는 머지않아 도래할 일요일법을 예표하며, 1844년 10월 22일과 일요일법 둘 다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의 완결이었던 십자가로 예표되었다.

밀러의 '보석', 곧 다섯째·여섯째·일곱째 나팔(이슬람)에 관한 것은 말세에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그것이 말세 개혁운동의 주제, 즉 셋째 화의 이슬람과 일치하는 이슬람을 식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마지막 개혁운동의 주제로서, 그것은 이전의 각 개혁운동의 주제들로 예표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개혁운동에서의 '부활'의 주제이든, 밀러파 역사에서의 '예언적 시간'의 주제이든, 다윗의 개혁운동에서의 '하나님의 궤'의 주제이든, 모세의 개혁운동에서의 '언약'의 주제이든 그렇다.

십자가의 사건이든,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이든, 혹은 개혁 운동들의 다양한 주제들이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짜와 주제가 생사를 가르치는 시험 문제가 되었다. 밀러의 '보석'인 '이슬람의 세 가지 화'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으로 표현된 것처럼, 생사를 가르치는 시험 문제이다. 밀러의 꿈의 시작에서 그 보석들은 태양처럼 빛났지만, 꿈의 끝에서는 '열 배 더 밝게' 빛났다. 밀러파의 역사에서 밀러의 보석들은 등유(등잔기름)와 같았지만, 오늘날 그 보석들은 로켓 연료다!

밀러파는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된 둘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의 시간 예언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했지만, 일곱째 나팔인 셋째 화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에 대한 심판으로서 셋째 화가 도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은 커녕 다섯째 왕국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러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에 관한 "큰 빛"은 마지막 때의 "한밤중 외침" 속에서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다.

하박국의 두 도표에 나타난 진리들은 본질적으로 과거 역사에서 성취된 진리들이다. 그 도표들은 밀러가 모아 정리하도록 인도된 기간 예언들에 기초해 있으며, 그 모든 기간 예언들은 1844년까지 종결되었다. 그 기간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에 더욱 빛날 것인데, 오늘날에도 밀러파의 역사에서 그러했듯이 똑같이 정확한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시간 예측을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것들은 과거에 나타났던 역사들의 반복되는 예언적 모형들을 제공하며, 밀러의 몇몇 보석들을 통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1844년에 시작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사역이 마칠 때까지 계속된다. 이천삼백 주야의 예언과 그 예언이 지적인 정결하게 하는 사역은, 화잇 자매가 올라이 강과 히데겔 강에 관해 말한 바와 같이, 여전히 "성취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은 세상 끝에 성취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그가 스날의 큰 강들인 올라 강가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들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증언, 112.

두 개의 도표에 실려 있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환상들 중 일부는 아직 미래의 것으로, 그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 장에서 성경 예언의 왕국들의 역사는 교황 로마가 치명상을 받는 데서 끝난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그 '돌'과 다니엘 2장의 여덟째 왕국은 아직도 미래에 속한다. 그러나 다니엘 2장, 7장, 8장과 관련하여 도표들에 나타난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성취되었다.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슬람의 셋째 화는 본질적으로 밀러파의 시대를 넘어서는 예언적 역사를 대표하는 두 주제이다. 그 두 주제와 더불어, 두 도표를 한 선상에 함께 놓을 때 예표되는 말세의 역사도 있다. 그렇게 하면 첫째 도표에 제시된 1843년의 첫 실망은 둘째 도표에서 바로잡힌다. 그 둘을 함께 보면 일곱 우리의 '숨겨진 역사'가 드러나고 확인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개봉됨과 더불어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다.

그 "숨겨진 역사"는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진리"란 합쳐지면 "진리"라는 단어를 이루는 세 개의 히브리 문자다. 그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세째,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수를 진리로서뿐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으로도 나타낸다. 그 "숨겨진 역사"는 실망으로 시작하여 실망으로 끝나고, 가운데에는 반역이 있다. 이는 "열셋"이 반역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첫째 도표에 그려진 1843년은 첫 실망과 지체의 때의 도래를 가리킨다. 지체의 때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도래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미련한 처녀들의 반역이 드러난다. 그 후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마지막 실망에 이르기까지 선포된다. 한밤중 외침의 그 '감추어진 역사'는 마지막 때에 (문자 그대로) 반복된다.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로 주의를 돌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이 비유는 그 문구 하나하나까지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인데, 이는 그것이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성취되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재의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올바로 이해하면, 앞선 진술은 마지막 때에 미련한 처녀가 될 수도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도 있는 유일한 부류는 실망을 겪은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임을 지적한다. 그 실망이 지체를 낳으며, "한 글자도 틀림없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그 비유는 실망으로 시작되는 지체기 동안 처녀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그 성음의 거리에서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은 마른 뼈들로 전락시킨 그

실망은 2020년 7월 18일에 일어났다. 대체로 재림주의 진영은 그 실망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실패한 예측을 축하했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란 말은 "한 글자도 틀림없이"라는 뜻이다.

밀러파 역사에서, 이전의 언약의 백성(개신교)은 1843년의 실패한 예측(첫 번째 실망)을 두고 환호했으며, 그 시점에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시험적 유예 기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 시험의 때는 1840년 8월 11일, 둘째 화(이슬람)에 관한 시간 예언이 성취될 때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강림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신교도들은 첫 번째 실망 때 예언의 때를 거절했는데, 잘못된 예측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실을 주었기 때문이다. 밀러파 역사에 있는 모든 이정표의 주제는 "시간 예언"이었다.

2001년 9월 11일에 세 번째 화(이슬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하였다. 마지막 때의 모든 이정표의 주제는 이슬람이다. 첫 번째 실망은 이전 언약 백성의 정결의 끝을 표시하는데, 그때 이전 언약 백성은 더 이상 진리를 구하지 않을 구실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지막 때의 "처녀들"을 위한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천사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전 언약 백성에 대한 시험은 첫 번째 실망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처녀들로 상징되는 자들의 시험이 시작되었고, 그 시험 과정은 결국 그 처녀들이 어리석은지 혹은 지혜로운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실망과 마지막 실망 사이에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있다. 밀러주의자들에게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주제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때의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주제는 '이슬람'이다. 밀러의 꿈에서 그는 외침(cry)으로 깨어나고, 그때 그의 보석들은 이전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직접 지목하는 도표 위의 보석은 이슬람과 조사심판이다. 그러므로 한밤중 외침의 '기별'과 조사심판이 대표하는 '경험'에 대한 시험은 이전의 언약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지막 처녀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두 도표를 함께 제시할 때 나타나는 도해는 첫 실망에서 마지막 실망에 이르는 역사를 밝혀 주며, "일곱 우렛소리"의 "숨겨진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조사심판의 마지막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마지막 사업은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이며, 그것은 다니엘 9장의 "곤란한 때" 동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열방이 격노하는 동안, 요한계시록 7장의 "네 바람"이 붙잡혀 있는 동안, 이사야 27장의 "동풍의 날에 거친 바람을 멈추심"의 때, 그리고 세상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려고 풀려나려 하는 "성난 말"이 억제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 모든 예언적 증언은 성스러운 도표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셋째 화의 이슬람을 가리킨다.

도표의 출판 시점 기준으로 미래의 사건들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하박국의 두 성스러운 도표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 이슬람, 그리고 열 처녀 비유의 성취이다. 그 도표들은 '경험'과 '메시지' 모두가 시험되고 인침받는 과정을 제시한다. 미련한 처녀에게 필요한 경험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며, 이는 십사만 사천이 상징하는 완전함을 가리킨다.

곧 여러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골로새서 1:26-28.

14만 4천은 '사로잡힘'에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사로잡힘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사흘 반 동안 거리에서 죽은 채로 있는 상태이다. 상징적 죽음의 사로잡힘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가리키며, 그 사로잡힘은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에서 보듯 회개가 나타나는 것을 요구한다.

죽은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때, 그들은 즉시 "기"로 들어 올려진다. 죽어 있을 때 그들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들에게 요구된 회개의 한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께 거슬러 걸어왔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거슬러 행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언으로 밝혀진 요건을 충족하면,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신다". 그리고 그때 들어 올려지는 그 기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얻게 된다.

두 개의 도표가 함께 놓일 때 나타나는 그 "경험"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최종 사역으로 성취된다. 그 "경험"은 "mareh" 환상, 곧 "나타남"의 환상으로 표상된다. 필요한 "메시지"는 예언적 역사의 "chazon" 환상이다. 그 "메시지"는 셋째 화의 이슬람에 의해 초래될, 반역적인 세상 위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규정된다.

1856년에 주께서는 재림운동 안에서 영적 예루살렘의 재건을 마치고자 하셨다.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 천사의 기별이 도래함에 따라, 밀러파 성전은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그 기초는 밀러의 꿈에서 '보석들'로, 또 하박국 2장을 성취한 1843년과 1850년 선구자들이 만든 두 도표에 제시된 예언적 진리들로 표현되었다. 그 후 그분은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일곱째 날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성벽을 세우게 하셨고, '걸어 다닐 길'의 일을 마치도록 그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옛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옛길에는 그들을 시험하고 가려내도록 마련된 하나의 교리, 하나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1863년에 재림운동은 '일곱 때'의 시험에 실패했고,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했다.

1844년 10월 22일은 곧 임할 일요법을 예표하며, 일요법의 때에 다니엘이 밝힌 바와 같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곽의 재건을 마치는 49년으로 표상된 그 사역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때부터 메시아, 그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있으리라. 거리와 성벽이 다시 세워지되, 환난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다니엘 9:25.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하며, 우리가 검토해 온 Early Writings의 본문에서도 다니엘서의 '곤란한 때'가 확인된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동안, 지상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방이 분노하되, 그 분노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음성에 능력을 더해 주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초기 저술, 85쪽.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사탄을 섬기는 한, 그의 지옥 같은 그림자가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실상을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스가랴서 3장과 4장, 그리고 4장 12-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개의 금관을 통하여 스스로 금빛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주님은 자원이 풍성하시다. 그분에게는 어떤 수단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 부족, 세속성, 헛된 말,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불신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모여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인격에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며 만인 중 으뜸이신 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영혼이 허영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만족할 때, 주의 영은 그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의 근시안적 시야는 그림자만 보되, 그 너머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불들고 있는데, 그것은 풀려나 온 지면을 휩쓸고 달리려는 성난 말로 묘사되며,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와 죽음을 몰고 간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에서 잠을 자야 하겠는가? 우리가 둔하고 차갑고 죽은 상태로 있어야 하겠는가? 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영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자기 발로 서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험착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험착한 문을 통과할 때, 그 넓이는 한계가 없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0, 217.